

시울 주보

제247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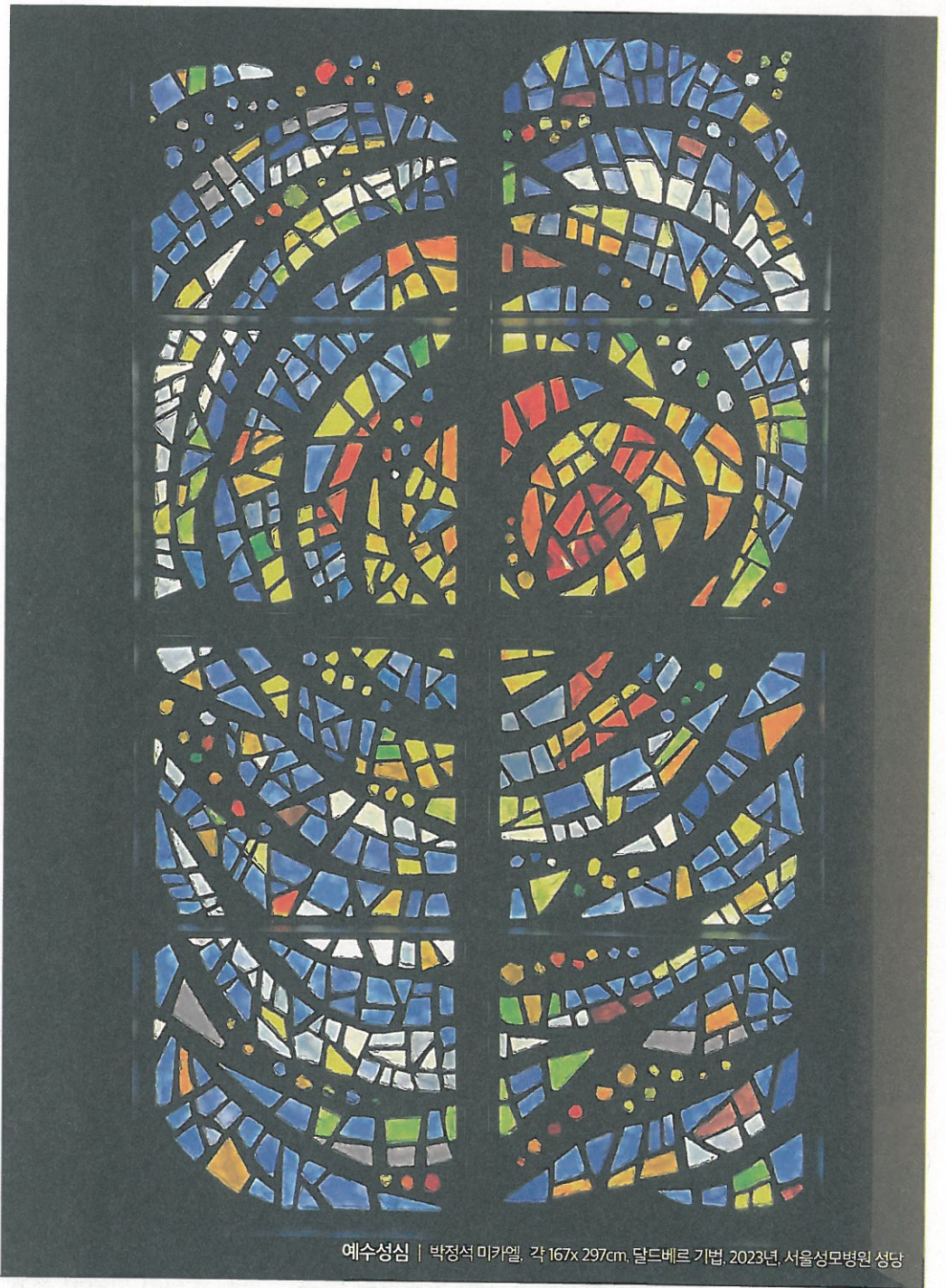
2023년 10월 29일(가해)

연중 제30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예수성심 | 박정석미카엘, 각 167x 297cm, 달드베르 기법, 2023년, 서울성모병원 성당

입당송 | 시편 105(104),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야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야라. 언제
나 그 얼굴을 찾아라.

제1독서 | 탈출 22,20-26

화답송 | 시편 18(17),2-3 7.3L 4-4.47과 51(◎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
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대!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
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 1테살 1,5L-10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 마태 22,34-40

영성체송 |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
이다.



최우주 필립보 신부 | 대신학교 지도신부

아직도 영어를 갈 때

지난여름 서울 의정부교구 부제들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러 장면 가운데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은 신선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정통 유대교를 따르는 남성들은 검은 양복 내지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은 코트를 두르고, 챙이 넓은 모자와 길게 땀은 구레나룻을 고수합니다. 기도문을 암송할 때 머리를 앞뒤로 흔들거나, 이마에 성경 구절을 넣은 성구갑과 팔에 띠를 두른 모습은 마치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잊지 않기 위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해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라는 율법을 준수하는 충실함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습도 새삼 떠올려봅니다. 교계 신문을 통해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교우 숫자가 급감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듯합니다. 그 원인 가운데 종교에 대한 무관심 증대 및 기성종교에 대한 실망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합니다만, ‘충실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충실함의 목적과 방향이 자기중심적 사랑과 무사안위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하느님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픈 바람과 유혹 때문이고, 그 결과에 실망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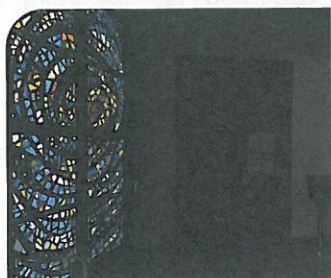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복

음에서 율법 학자는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결국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사랑’이라는 으뜸 계명 외에도 그와 상응하는 계명, 즉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계명으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통해 여러 차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뿐 아니라, 당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가족과 친지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고서는 당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가치를 폄하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외연을 넓히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씀도 자기중심적 함몰된 삶을 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자연을 향해 뻗어나갈 때 우리 삶은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갈 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발판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과 위로가 되며 내일을 마주할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인 여러분, 아직도 영어를 갈 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

가혹한 수난의 고통을 겪으며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평범한 제가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인 저를 구원해 주는 근원적인 정신임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마치 그렇게 사랑이 저를 채워 나가듯, 저 스테인드글라스도 빛으로 공간을 채웁니다. 믿음과 헌신의 상징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게 하는 그 빛으로 말이지요.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강군오 베드로 | 전(前) 서울남부교도소 소장

젊은 시절의 신앙과 성심회

저는 일선 교정 기관에서 30년간의 교도관 생활을 마치 고 지난 6월에 퇴임하였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1993년 고향 제주로 초임 발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여러 고민 끝에 혼자서 집 근처에 있던 성당을 찾아가 예비자 교리를 배우며 시작된 듯합니다. 야간 근무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삼수한 끝에야 성탄절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 어려우면 나중에 쉽다고 생각하였고, 이 또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또다시 머나먼 서울구치소로 전보되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고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선배의 권유로 천주교 교도관 신자 모임인 성심회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성심회 활동을 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았고 첫째 딸의 세례를 통해 신앙이 좀 더 성장했습니다.

얼마 후 경비교도대의 중대장을 맡게 되었는데, 종파별로 부대원들 간의 모임이 있었으나 그 중 천주교 모임만 친목 도모 위주의 동아리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이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고, 신앙심이 싹트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들이 미사를 봉헌하고 예비자 교리를 받을 수 있게 성심회와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엔 교정사목 신부님께서, 나중에는 인근 본당 신부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신자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이 10여 명에서 30여 명으로 늘어났고, 경비교도대 처음으로 예비자 1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젊은 대원들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얻은 배움이 더 많았고,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안과에서 수용팀장으로 일할 당시 불안한 생활 태도를 보이던 사형수에게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동행하여 사무실에 온 사형수의 손에는 조그마한 종이박스가 들려 있었는데, 돌만 남게 되자 제게 감사의 성탄 선물을

이라고 하며 건네주었습니다. 그 선물의 정체는 세숫비누로 조각한 성모님상이었고,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을 담아 만든 것임이 여실히 그 감동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가 선물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어리숙한 행동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라지 않고 건네준 따뜻한 말이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성심회에서 주관하는 수용자들을 위한 상담과 불우 수용자 영치금 등의 물적 지원 활동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과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말씀을 교도관으로 생활하며 깨닫도록 해주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30년간 수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큰 탈 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느님과 도움을 주신 신부님들 그리고 동고동락했던 성심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1): 미래의 기억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할까요? 무엇보다도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일 것입니다. 2천 년 전 팔레스티나의 작은 마을에서 30여 년을 사셨고, 약 3년 정도 공생황을 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과거를 향해있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향해 있습니다.

신학 용어 중에 '미래의 기억(memoria futuri)'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란 보통 과거에 대한 것인데, 약속된 미래에 대한 희망, 믿음을 가리키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억해야 할 미래 중의 하나가 바로 '육신의 부활'입니다.

한편 현대 과학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근본 구성 요소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라는 것을 밝혀냈고, 생명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후 우리의 몸은 흙으로, 혹은 재로 돌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이 진지하기 위해, 육신이라는 말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은 순전히 물질적인 어떤 것, 인간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육신은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영혼의 무덤도 악의 원리도 아닙니다. 육신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

고, 하느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전체로서의 인간'을 가리킵니다. 즉 육신은 하느님과 이웃을 만나는 장이며, 하느님, 그리고 인간들과 통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조건입니다. 육신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육신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기도, 자신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꿈과 자아를 이 세상 안에서 실현합니다. 따라서 육신은 영혼과 구분되지만, 영혼이 인간 역사 안에서 실현된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육신이 우리 자신을 감추기도, 속이기도 한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감추기도 하니까요.

한편 육체는 이중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때로 이기심, 탐욕, 권력욕, 죄 등등에 매이기도 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육신은 사랑, 헌신, 봉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가 육의 지배를 받는 육신이라면 후자는 영의 지배를 받는 육신, 혹은 영적인 몸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1코린 15,44)

여기서 영적인 몸(육신)이란 어떤 영적 실체라기보다는, 영에 의해 그 특성이 규정되는 육신, 다시 말해 하느님에 의해 전적으로 규정되고 지배되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 육체는 어떤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하느님의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이 영적인 몸에 대한 미래의 기억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예루살렘에서 체포와 바오로의 회심 설교 (21,27-22,21)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누군가의 선동은 진실을 식별하는 도구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낙인찍고 추방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예수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고, 바오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악의 선동조차도 구원과 복음 선포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원의 표징으로, 바오로의 추방은 로마를 향한 복음 선포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 변화의 여정이 바오로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바오로의 정결 예식이 끝날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오로가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가르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오로를 향한 선동은 로마 군인들의 개입을 불러왔고, 바오로의 체포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체포와 박해는 복음 선포를 가로막기보다는 주님을 통해 기회의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오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 앞에서 군중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충실한 유대인이었지만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신앙고백과 복음 선포입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 9,1-19에 소개됐었던 바오로의 회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교에는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들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회심 이야기는 바오로가 직접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당당하게 설교합니다. 자신은 경건한 유대

인이었으며,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공표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향한 충실성 때문에 그리스도 신자들을 박해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헌신을 자신의 사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듯합니다. 맹목적인 충성은 참된 주님을 못 알아보고 박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오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박해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비가 사명의 핵심임을 전해 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미사도 “내 탓이오. 내 탓이오.”라며 자신의 죄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죄의 고백은 우리를 상심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고백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자비송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다는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곧 하느님의 자비가 거룩한 미사의 중심이 되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바오로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22,16) 죄의 용서를 통한 세례로 바오로는 새로 태어났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결국 바오로의 사명은 자신의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주님의 자비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미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자비의 은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청소년국 중고등부는 청소년 동반자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소식지 “로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켓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운영되며 하늘마음 주보와 교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 소식, 각 본당 주일학교의 소식들을 취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금 우리 주일학교는’(이하 지우주)은 서울대교구 본당 내 중고등부 주일학교 소식을 모아 전하는 콘텐츠이며, 매월 다양한 본당의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사와 일상 속 사진을 모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봄부터 가을까지,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우주’에 올라왔던 소식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중고등부주일학교
#소식을전합니다!
#지우주
#지금우리주일학교는
#청소년국중고등부

매월 중고등부 소식이 담긴
‘지금 우리 주일학교는’ 콘텐츠는
로켓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래 계정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청소년국 중고등부 주보
‘하늘 마음’ 카톡으로 만나요!

왼쪽 큐알(QR) 코드 스캔으로 플러스친구를 추가하면
청소년을 위한 소식이 가득한 중고등부 주보
‘하늘마음’을 매주 카톡으로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소식이 가득한
로켓 인스타그램을 소개합니다!

한 달간의 본당 중고등부 소식이 담긴 #지금우리주일학
교는, 그리고 각종 중고등부 연수 소식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로켓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소식도 받아보세요!

선교사의 삶



고베 사제 모임

찬미 예수님! 저는 일본 요코하마교구 고텐바성당에서 4번째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반복되는 일상 중에 단비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울대교구 선교 사제 모임이 작년 도쿄에서 했던 첫 모임에 이어, 올해 고베에서 두 번째 모임을 한 것입니다. 고베중앙성당에 모인 7명의 신부와 해외 선교 체험을 온 4명의 신학생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서로 무탈하게 살아왔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대 청년들과 40대 아저씨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딱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 년을 살아갈 힘을 얻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의 더운 여름날, 고텐바성당에서 9년 동안 사목하셨던 밀라노 선교회 소속 마리오 비얀킨 신부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당 사

목회장님과 함께 요코하마교구 주교좌 성당인 야마테성당에서 장례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비얀킨 신부님은 1965년에 서품받으시고 1972년에 일본에 오신 후 올해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요코하마교구에서 본당 사제로 활동하신 분이었습니다. 장례미사 중에 교황대사님은 “비얀킨 신부님이야말로 선교사의 죽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작년 성탄에 신부님께서 가족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부르심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이자 주님의 선물이기도 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기회입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도록 불러주시는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비얀킨 신부님의 말씀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일상



김은복 모세 신부 | 일본 선교

이 무너졌을 때,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신자들과 벽을 느낄 때면 그냥 한국에 있을 걸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 날도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자잘한 고민을 해왔는데, 50여 년간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사목하신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서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사제로서,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기쁘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비얀킨 신부님 장례미사

한국 교회는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교회이지만, 그 역사 안에는 단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멀리 타국에서 사목하다 돌아가신 수많은 외국인 신부님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진 빛을 조금이라도 값는 마음으로, 저 또한 타국에서 열심히 매일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 넓고 깊게 전해지도록 기도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동성혼 축복



방중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현재 바티칸에서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가 진행 중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개막 미사 강론에서, “일치하고 형제애를 실천하는 교회, 경청하고 대화 하며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는 교회”를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시노드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회 일각에서는 교리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보수적 입장의 추기경 다섯 명은 지난 7월 교황님께 “의심(dubbia)”이라는 제목의 질의서를 보내 ‘예’, ‘아니오’의 답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노드 개막전 10월 2일, 교황청은 이에 대한 교황님의 답변을 공개했고 이는 시노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주목받은 질문은 ‘같은 성(sex)을 지닌 이들의 결합에 대한 축복’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입장이 시노드 이후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황님은 이 문제에 대해 교회가 혼인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자연적으로 자녀의 출산을 향해 열려 있으며 이 결합만을 혼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은 “단순한 호칭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이상(ideal)을 뛰어넘는 것이며 다른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고유한 본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이 신념과 모순되거나 혼인이 아닌 것을 혼인으로 인정한다

고 암시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예식이나 성사를 거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동성에 성향이 있는 이들에 대한 “사목적 사랑”을 당부하셨습니다. 동성애자 간 혼인의 인정 여부가 “사목적 사랑의 유일한 표현이 아니며” 이 사랑은 “친절과 인내, 다정함과 격려”로도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거부하고 부정하는 심판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생깁니다.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발언만 툭 떨어트려 놓는다면, 마치 교회가 동성혼을 부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목적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이 이런 식으로 왜곡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의 이 발언은 혼인에 관한 확고한 교리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상기한다면 교황님의 “사목적 사랑”은 동성혼의 승인이 아닌, 동성애 성향과 관련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을 거리로 내몰거나 핍박하지 말라는 따뜻한 권고가 됩니다. 결국 교황님의 핵심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목적 신중함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요청하는 축복의 형태가 결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전달하지 않는지 적절히 분별해야 합니다. 축복을 요청하는 것은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간구이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월 1일(수)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11월은 위령 성월이며, 11월 2일(목)은 '위령의 날'로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날인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성인들을 먼저 기념하고, 이튿날에는 연옥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용산 성직자 모역 (용산성당 내) 문의: 02)719-3301 용산성당	때: 11월 2일(목) 오후 2시 참석 범위: 제1 중구-용산지구 ~ 제6 도봉-강북지구 신부님과 본당 신자 미사 집전: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과 사제단 공동집전 강론: 제6 도봉-강북지구
용인 성직자 모역 (용인공원묘원 내) 문의: 02)2647-6413 양천성당	때: 11월 2일(목) 오후 2시 참석 범위: 제7 동대문-중랑지구 ~ 제18 양천지구 신부님과 본당 신자 미사 집전: 총대리 손희송 주교님과 사제단 공동집전 전체 준비 및 강론: 제18 양천지구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10월 31일 유영근 요한 신부(43세)
- 1954년 11월 5일 김피득 베드로 신부(47세)
- 1984년 11월 1일 최창정 요아킴 신부(47세)
- 1993년 11월 1일 최석호 바오로 신부(73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내용 수정·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교구청 알림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강민경, 문선미 2인전: 1전시실
가톨릭사진가회 정기회원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1일(수)~9일(목)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11월2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해외선교 봉사국) /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문의: 02)727-2407, 2409

세계자살유가족의 날 기념행사

대상: 자살유가족 및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행사: 1부 10시 미사(유경춘 주교 집전), 2부 11시 특강(정연체 (전)서울대학교 의학 박사)
때, 곳: 11월18일(토),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3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영성심리특강(송봉모·오용진·홍성남·김하중 신부), 문종원 신부 내면아이의 회복, 이이나 작가의 영적글쓰기 등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제1회 그린아트페스티벌 전시회

소방관, 예술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명문화나눔의 장
때: 11월1일(수)~3일(금) 11시~19시 / 후원: 서울시
곳: 172G 갤러리(전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주최: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콘서랑봉사회 / 02)727-2078

2023 한국평단협 열린세미나 참가자 모집

주제: 경청과 대화를 위한 가톨릭 교육 모델의 적용 가능성 / 회비 없음
때, 곳: 11월4일(토) 14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명동)
발제: 김남희 교수(가톨릭대, 주교회의 평사위 위원, 평사연 연구위원) / 토론: 조성풍 신부(명동본당 주임, 전 교구 사목국장), 박응임 교수(안동대, 평사연 연구위원, 현재우 박사(평사연 부소장)
사회: 한민택 신부(수원가톨릭대 교수)
문의(사전접수): 02)777-2013 / 홈페이지(www.clas.or.kr) 온라인 접수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벽 본당 미사)
때, 곳: 1390차 미사 10월3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덕원자치수도원구 고산 본당, 원산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벽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2023 한반도평화나눔포럼 / 문의: 02)3789-0815
주제: 한반도 화해와 평화에 이르는 길
때, 곳: 11월18일(토) 10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진리관(회화동)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harepeace.net) 참조

향심기도 율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11월5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11월6일(월) 13시30분~16시30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11월1일(수)~24일(금) / 3개월 수업(12월~2024년 2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겨울학기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블	그레고리오성가(남·예)·성악(남·예)·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2023년 가을걷이 감사미사 및 도농한마당잔치

때: 11월5일(일) 9시30분~16시
곳: 명동대성당(앞마당, 성모동산, 가톨릭회관 앞마당)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일회용품·비닐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장바구니와 (음식 포장 시) 용기를 지참해 주세요
문의: 02)2068-7066(wm.or.kr)

12시	가을걷이 감사미사(유경춘 주교 주례,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제단 공동집전)
9시30분~16시	생명농산물 직거래 나눔 장터, 전시·문화·체험·먹을거리마당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신청: 10월30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일시	코스
11월7일(화) 오전 9시부터	1코스 팔섬의 길 (명동대성당-가톨릭대 성신교정)
11월11일(토) 오전 9시부터	3코스 일치의 길 (새남터 순교성지-삼성산 성지)
11월21일(화) 오전 9시부터	2코스 생명의 길 (가회동성당-당고개 순교성지)

인준단체 알림

모임

Jesus 시그널 피정 3차(ICPE 선교회)

대상: 가톨릭 미혼 남녀(25세~39세) / 010-2804-6523
 때, 곳: 11월25일(토)~26일(일), 마리스타 피정의 집(합정)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강사: 이상기 회장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원 피정

지도: 양창우 신부 / 강사: 황인숙
 때, 곳: 11월3일(금) 10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접수): 02)929-2977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제주 평화의 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대상: 개인(분당 전신자 피정, 구반장 피정)
 때: 11월9일~11일(행복 피정)·11월17일~19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하반기 피정

대상: 30대, 40대를 위한 젊은이들 / 강사: 이유경
 때: 11월4일(토) 13시~19시 / 내용: 신앙안에서 찾는 나의 미래 (1단계-결혼과 취업 및 이직, 창업에 관하여)
 곳: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교육관(구로구 경인로2길 11)
 회비: 3만원(저녁식사 포함)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작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연옥영혼을 위한 기도는 천국에 '천당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 찬양: 고영민
 지도: 정중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일 둘째주(토) 11월11일 14시~18시, 구산성지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1차	11월17일(금)~25일(토)	문의:
제122차	12월29일(금)~2024년 1월6일(토)	061)373-3001,
제123차	1월19일(금)~27일(토)	010-3540-9001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11월17일(금)~19일(일)	김대우 신부(수원교구)
12월15일(금)~17일(일)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2024년 1월19일(금)~21일(일)	구본만 신부(서울대교구)

노들담 수녀회 청년 대림 묵상모임 '별해는밤'

대면반	11월29일~12월20일 매주(수) 19시30분(총4회), 노들담교육관(북촌로54) / 대상: 30세 이하 미혼 여성
비대면반	12월1일~22일 매주(금) 20시(총4회) / 대상: 45세 이하 미혼 남녀 / 010-3930-6730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1월10일(금)~18일(토), 12월8일(금)~16일(토)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특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12월12일~26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정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미국가톨릭사립학교 1월 학생 모집 / 문의: 02)2258-8983

대상: 초5~고1 / www.oakinternational.co.kr
 겨울 캠프 프로그램(7주 학교생활) 및 단·장기 재학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가톨릭온(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 공부와 기도에 관심 있는 분(수시 접수)
 내용: 구세사(김혜운 수녀), 노화심리(김효성 수녀), 지혜여정 시리즈 여러 강좌 / 문의: 010-3092-1108
 홈페이지: www.catholicon.co.kr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4년 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12월4일(월) 14시
 원서접수: 11월6일(월)~17일(금) 17시
 문의: 02)3147-8156 대학원교학팀, 02)3147-8664 조교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주제: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시편 2장 참조) /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명동성당 주임)
 말씀: 박민우 신부 / 찬양: 최준익, 이경수
 때, 곳: 11월5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2023년 전진상 치유인문학 강좌시리즈 13

꿈꾸는 노년, 지혜로운 우리들의 서로돌봄
 때: 11월2일·9일·16일 (목) 10시~12시30분 / 문의(접수): 010-7527-1956 (재)국제가톨릭학제회(A.F.I)
 곳: 전진상센터(마포구 합정동) / 회비: 3만원

1강 11월2일	교회가르침에 의한 노년의 의미와 가치 회복
2강 11월9일	꿈꾸는 노년, 새로운 삶의 시작
3강 11월16일	서로돌봄을 위한 준비

제23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cpbccamp.com)

미국 LA영어캠프 (3주)	2024년 1월10일~30일 / 디즈니랜드, UC버클리, 스탠포드·UCLA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그랜드캐년, 실리컨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 (4주)	1월10일~2월3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정글투어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미사

끈베틀달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11월4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역삼동성당 직장인 미사 / 문의: 02)553-0801
 때, 곳: 매주(수) 낮 12시, B1 경환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11월1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첫토요일 신심미사·묵상회(파티마의 세계사도직)

1) 첫토요일 신심미사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11월4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2)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때: 10월30일~12월4일 매주(월)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안내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볼자비회수녀회)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릿길 성지, 청양 다라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esort.modoo.at>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직원모집

한마음한몸운동본부(명동법집) 직원 모집

분야: 주방조리(계약직) / 채용시까지 접수
 대상: 연령·학력·성별 제한 없음(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근무조건: 주3일(수·금·일 / 일요일 근무 필수)
 자세한 내용,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은 가톨릭 굿뉴스 홈페이지-게시판-홍보마당-구인·구직 참조

서울대교구 쑥고개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사무행정, 회계업무 PC 업무 가능한 분 / 문의: 02)873-2333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12월13일(수)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8785,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79 쑥고개성당) 및 이메일(wld@seoul.catholic.kr)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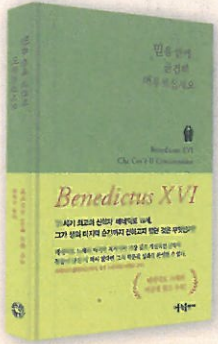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1월5일(일) 10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11월11일(토) 13시	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11월 추천도서

무르익어 가는 가을,
신앙의 온도를 높여 줄 영성 서적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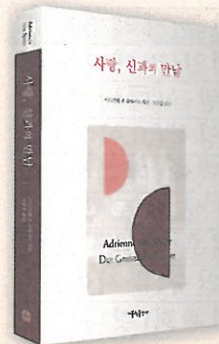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무르십시오

베네딕토 16세 교황 지음 | 25,000원

국내 최초로 출간되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마지막 저서

“이 책은 저의 죽음 이후에 출판될 것입니다.”
‘21세기 최고 신학자’가 남긴 영적 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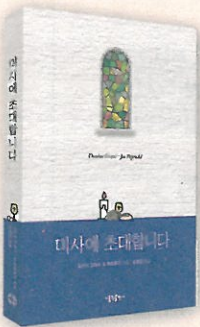
사랑, 신과의 만남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 지음 | 22,000원

유한한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

신비가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
성삼위에 관한 통찰을 담다

미사와 전례의 참된 의미를 깨닫다



미사에 초대합니다

도미니크 그라시, 조 파프로키 지음 | 17,000원

미사의 은총과 기쁨으로
안내해 줄
나의 미사 안내서



말씀에 초대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쉬슬러 지음 | 18,000원

성경의
살아있는 힘을
체휼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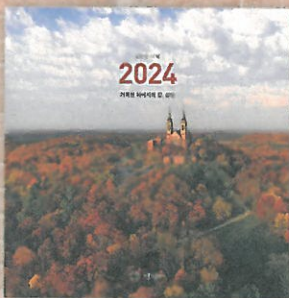


전례에 초대합니다

안드레아 자크만 지음 | 20,000원

전례 도구의
상징을 통해 깨닫는
가톨릭 신앙의
아름다움

2024 CALENDAR



거룩한 아버지의 집, 성당

아름다운 성당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며 한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단화와 함께하는 순례

제단화를 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마음을 갖게 해 줍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

아름다운 성모님을 담은 그림과 함께
성모님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출판사의 모든 달력은
2023년 12월 ~ 2024년 12월
총 13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값 3,500원





제2시대문·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2024년도 사목위원

직책	이름(세례명)
회장	서태일(스테파노)
부회장	정원근(다니엘)
부회장(남성총구역장)	박영철(요아킴)
부회장(여성총구역장)	명귀애(테레사)
총무	문성호(토마)
기획분과장	전대훈(이나시오)
전례분과장	석인숙(루시아)
선교분과장	김재희(릿다)
생명환경·가정분과장	고애경(베로니카)
주일학교분과장	박명규(제레온)
청년분과장	이상현(사도요한)
사회사목분과장	이재원(예로니모)
노년분과장	정남숙(세실리아)
재정분과장	박기운(미카엘)
시설분과장	변경섭(사도요한)

◎ 2024년도 사목위원 인사

일시 : 11월 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 그동안 수고해주신 사목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임명되신 분들께서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 본당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령의 날 미사

11월 2일(목)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0시	(합동위령미사)

※ 미사 후에 연도가 있습니다.

- ◎ 성모신심미사 : 11월 4일(토) 오전 10시
- ◎ 유아세례 : 11월 5일(주일) 오후 4시 30분
- ◎ 예비신자 교리반은 11월 5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 ◎ 연령회 미사 : 11월 7일(화) 오전 10시
- ◎ 오라떼 성가 발표회
일시 : 11월 11일(토) 오후 7시 30분 / 대성전
- ◎ 여성구반장 회합 : 11월 12일(주일) 12시 / 소성전
- ◎ 구역성지순례 단체사진 시상식(형제참여도)
일시 : 11월 12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중
※ 9월 10일~10월 28일까지 구역별로 진행한 성지순례에서 형제들의 참여도가 높은 3개 구역을 시상합니다.
- ◎ 수험생 축복 미사 : 11월 14일(화) 오후 7시
- ◎ 수험생 부모 하루 피정
일시 : 11월 16일(목) 오전 8시 40분 ~ 오후 2시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회비 : 10,000원
- ◎ 연성회 야외행사
일시 : 11월 4일(토) 오전 8시 성당에서 출발
장소 : 마재성지

◎ 2지구 중고등부 운동회

일시 : 11월 5일(주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소 : 망원한강공원 축구장 / 참가비 : 무료
 대상 : 연희동성당 중고등부 학생 전체
 접수 : 학년 담당 선생님 전화 or 카톡
 문의 : 사도요한 교감 (010-4041-3769)

◎ 2023년 중고등부 가을소풍

일시 : 11월 12일(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8시
 장소 : 롯데월드 / 회비 : 30,000원
 대상 : 중등부 1학년 ~ 고등부 2학년
 접수 : 학년 담당 선생님 전화 or 카톡
 문의 : 사도요한 교감 (010-4041-3769)

◎ 남성총구역 족구대회

일시 : 11월 19일(주일) 오후 2시 ~ 오후 5시
 장소 :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
 문의 : 남성총구역장 (010-4913-1158)

◎ 연령회 남·여 회원 모집

문의 : 루시아 회장 (010-6288-1683)

◎ 부활판공성사, 성탄판공성사를 보신 후 반드시 성사표를 제출하시거나 사무실에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교적에 성사 이력이 3년동안 입력되지 않으면 냉담자로 처리됩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10. 22)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45	831 (40.6%)	795 (38.9%)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연령회 감사헌금

故 김동은 프란치스코 상가 삼십만원
 故 김경식 요셉 상가 삼십만원

◎ 감사헌금 (10월 16일 ~ 22일)

진영문 일십만원 진현주 오만원
 진현수 오만원 광선모 오천원
 익명 일십오만원 은희봉 오만원
 최일곤 일십만원 이성에 삼십만원
 강산여재원 일십만원
 故 김동은 프란치스코 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전교주일)

교무금 8,500,000원
 주일헌금 4,868,000원
 전교주일2차헌금 1,306,500원

입당	48	봉헌	211,512,220	성체	501,169,152	파견	82
----	----	----	-------------	----	-------------	----	----

